

# '관' 할때 되고 안 되고를 다 놓아야죠

## 19면에서 계속

저는 이날까지 생각이 돌아오면 항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없는 생을 살아오는 동안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낳을 때는 부모가 되고 주고 또 내가 자식이 돼 주고 이렇게 바뀌어서 인연이 되어 돌아다니는 수도 없고 헤어질 수도 없죠. 부모로도 헤어질 수 없고 자식으로도 헤어질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 부모님의 배를 아프게 했으니... 그렇지만 내가 자식이 됐다가 내가 또 그 부모의 부모가 됐다면 역시 또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항상 재자리를 딛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을 탄생시켜 준 육의 부모와, 밤의 부모의 은혜를 돌이키기 위해 항상 각자 마음에 진실하게 관하고 놓고 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죽는 생각을 하면 무서워요

**문** 저는 초등학교 3학년이 다니는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저는 죽는 생각을 하면 무서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면 마음이 나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는데 그러면 괜찮다고 하세요. 그래도 안 괜찮아서 큰스님께 글을 올리고 있어요. 큰스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 우리 어린이가 이 마음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살고 죽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근본의 입장에서 죽고 살고 할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저 틀에 있는 나무는 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꽃이 피고, 여름이면 열매를 맺고, 가을이 오면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면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는 것을 너도 보지? 그러나 그 잎이 모두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 뿌리가 아주 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

그와 같이 나무에 있어서 잎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몸이 죽는 것과 같단다. 나무의 잎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나무가 뿌리 채 죽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결코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란 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래 죽을 것도 없다' 하는 것이야. 물질에는 반드시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없다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을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을 수도 없고, 보이라고 해도 보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뿌리는 분명히 있어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나무들이 한철 지나 잎이 낙

엽되어 떨어진다고 해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거야. 참고 견디면서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친다해도 봄을 기다리는 인내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추운 눈보라를 견뎌내는 것이지. 나무 줄기나 잎사귀가 뿌리에 의지하듯 우리 각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라면 나의 근본, 영원한 나의 조상이자 스승인 주인공을 믿고 살 수 있어야 죽고 사는 것에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이 육신이라는 물질과 나 이외의 상대만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간다면 올바른 인간이라고 할 수 없겠지? 그러니 수 억겁을 거쳐서 나를 이끌어온 나의 근본, 영원한 나의 친구인 주인공을 믿고 항상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그 근본에 놓아 가는 마음공부를 열심히 해 나가기 바래. 알아듣겠지? 침착하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거야. 공공한 것이 또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편지하렴.

### 어떤 것이 베푸는 것인지

**문**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고는 한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저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이 베푸는 것인지를 좀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답**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술집을 운영하는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가려고 안됐는데 영 말을 안 들을 것 같아서, 내 공부이니, 내가 그냥 마음으로,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라고,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게 하라고 관하고선,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 소리 안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끝내, 만년 술에 절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툭툭 털고 와서는 취할 때를 마련해야겠다고 하면서 술집에 왔더라 합니다. 이제는 다 나은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한 생각을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이제는 병이 나왔으니 애타고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할데니까, 저 사람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들어 안인 까닭에 취지도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만났더니 무슨 회사인가에 취직이 됐더라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부 가 봤다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잘 됐건 만도 자기가 술을 한잔 사주고 싶더라 합니다. 고마우니까, 자기 공부가 되는 거니까, 자기 공부 대상이 됐으니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해봤으니 나는 나대로



그림 · 최주현

## 새 물 넣어주면 구정물이 맑은 물로 마음 가난하면 걸음 걷는 것도 가난

중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열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보살행이 아닙니까? 자기는 나쁘게 되고 남은 좋게 되고 또, 나는 좋게 되고 남은 나쁘게 되고 이런다면은 그건 보살행이 아니며 자기 마음에 자기 근본부처가 있는 줄을 모르는 증생들이 하는 얘깁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특별하게 될 해보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근본을 항상 놓치지 말고, 주위에 인연이 있다면 나의 근본에 틀어박혀서 나도 이익하게 하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실천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나가다가 보면 내가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것도 자연히 알게 될 겁니다.

### 관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문** 예를 들어서 감과 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올리 동쪽으로 가질 바라면서 주인공에 올리 그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관하고, 반대로 올은 서쪽으로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며 감과 함께 서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주인공에 관한다면, 주인공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집념인지 자기 마음에 자기 근본부처가 있는 줄을 모르는 증생들이 하는 얘깁니다.

여러분은 지금, 본래부터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주인공을 발휘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잘못해 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디다. 그것이 뭐냐하면 여러분은 주인공을 마음의 뜻으로 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굴리려고 한단 말입니다. 사랑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뜻을 가져야 합니다. 마음으로 관하지 않고 머리로 굴리다면 자칫 잘못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믿는 것도 마음이고, 굴리는 것도 마음이고, 들고 내는 것도 마음입니다. 자세히 지켜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

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관하라고 하는 줄로 아시는 것 같은데, 관(觀)한다는 것은 되고 안되고를 다 놓기 위해서 관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나라고 하는 거지된 나의 고정된 실체를 하나하나 놓게 하기 위해서 근본에 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근본을 발현하기 위해서, 근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르니까 하나하나 체험을 통해서 나의 근본에 모든 것을 놓게 해서 자신을 발현하게 하기 위해서 관하라. 놓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불난 집에 아이가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앞에서 장난감을 주며 '너 이거 좋네니 어서 나와' 하면서 내미는 우선의 장난감이 좋아서 아이가 그 불난 집을 빠져 나오는 방편을, 그것이 마치 전부인 줄 알고 일의 해결만을 위해 진리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머리로 따지고 유아래고 하지 말고 정말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나고 드는 모든 것을 근본에 맡겨 놓으세요. 그래야 내 안의 근본, 나의 영원한 스승이자 조상인 나의 에너지 주원자를 발현해서 내 안의 자생종생들을 모두 한마음으로 규합하여 나쁜만 아니라 주위에 인연된 모든 이들이 고통받지 않고 살 수 있게 이끌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정말 나의 근본을 믿고 모든 것을 놓아나갈 수 있는 실천 아닌 실천을 이루어 나가세요. 되는 것만이 법이 아니라 안 되는 것 또한 법입니다. 그 자유자재한 세계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진실하게 믿고 들어가세요.

### 결혼 앞둔 예비부자의 자세

**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자입니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치른다고 생각하니 새삼 씁쓸하다는 것이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도 여태는 느껴보지 못한 애뜻한 마음이 들곤 합니다. 또 낙담하지도 못한 살림살이에 괜히 사람 하나 데려다 고생만 시키는 건 아닌지 이런 저런 앞서는 두려움도 있고요. 새로이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높으신 가르침 바랍니다.

**답** 그저 오직 하나,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탓이라고만 하고 사세요. 무조건 내 탓이라고 하기보다 내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일어난 거다. 내가 여기 있으므로 일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살면 분란도 안 일어나고 자식을 기르면서든 올바른 방향을 일러 줄 수 있고 말입니다. 살기 힘든 건 누구누가 다 그렇습디니까. 그런데 젊어서 그런 건 추억이

죠. 젊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애써 모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는 거야 오다가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해먹으면 되고, 사일은 사는 데 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 분이 사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 산다는 것이 어렵구나. 하나 하나가 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과거가 어디 멀리 있는 줄 알고, 미래가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지만 현재에 다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할 필요도 없고 오지 않을 미래를 당겨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너무 애를 쓰지 마세요. 한 발 떼어놓을 때 잘 때 어놓으려고 애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실되게만 떼어놓으면 그 한 걸음 떼어놓은 것 때문에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살기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모두가 어렵게 살거든요. 마음이 가난하면 걸음 떼어놓는 것도 가난하죠. 그러면 나오는 소리가 가난하고, 마치 인생을 살면서 지게를 무겁게 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님에게 새삼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했는데, 살면서 부모님이 연세가 들면 부모의 은혜를, 인연의 은혜를 자식되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속 하나도 안 썼다고 어떤 이는 말하겠지만 부모는 일거수 일투족 다 자식들을 위해서 마다 안하고 고통이라는 소리 없이 자기의 인생을 바치죠.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기르는 거지만 그게 알고 보면 인연의 인과거든요. 그러니 마음을 잘 쓰고 관하면서 사셔야 정말 그 인연을 녹이고 은혜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정자 난자로 모습을 형성시켜 줬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집을 부모가 쳐서 살기는 하지만 집 속에는 진짜 자기의 생명력이라는, 불성이라는 참 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수 일투족 믿어야죠.

어디를 가서 어떻게 살든 꼭 관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일이 없이 살게 하는 것도 너야.' 하고 관하고요. 이게 정신력이거든요. 보이는 자기는 상대방을 모두 주시하고 산다. 이런 거죠. 그러나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 신용도 좋아질 수 있고 애들을 낳아 길러도 형제간에도 우애가 좋고, 또 자신이 첫째 좋고 말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관하면서 사는 거죠.

생활이 도입입니다. 모든 생명들의 의식과 생각하고 살고 하는 것이 자기라는 생명력에서 결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업이 되고 유전이 되고 영계성이 되는 것들이 부어 되면 다 나와서 현재 이렇게 고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주인공에 진짜로 믿고 관하세요. '너만이 구정물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잖아?' 하고요. 새 물이 들어가서 구정물이 맑은 물이 되니까 팔자 운명이란 게 없다는 것을 아시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중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여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중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중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 불자정보

불자여러분이 필요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x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사찰 토굴 부지안내**

세로 5cm x 가로 5cm (1회 5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지리산 토굴 (황토방 신축) 안내

- 위치: 실상사 마천-백무동 방향 -가차마을 위
- 대지: 422평 건물 2채 건물 32평
- 평: 18m 석축 기초 원공 받 183평
- 평: 165평 일야 2583평 총 3353평
- 완공일자 2001년 6월 6일
- 가액: 답사 후 결정

011)9542-9060 / 055-963-4965

### 포교당 안내

- 위치: 경기도 안산시 상록수역 부근
- 구조: 3층 건물 2층 40평 (법당, 방3, 주방)
- 시설: 삼층불, 월불 108, 신중, 칠성 탕화
- 가액: 보증금 5백, 월 50만원
- 시설비 1300만원

02)489-5465 / 011)258-1147

### 사찰 안내

- 위치: 울산 인양
- 대지: 70평 건물 약 60평, 법당 20평 공양실 16평
- 특징: 사찰내 모든 집기류 무상 제공
- 시설: 심야 전기 보일러, 화장실 3개, 욕실 2개
- 가액: 8천만원 (전세가능)

052)254-1929  
011)9315-1200

### 토굴 안내

- 위치: 전남 광양시 진월면 마룡리117-8번지 구덕마을
- 대지: 140평 방3개 현대식 주방 보일러 사시 축사
- 가액: 3천만원 (가액 절충)

019)545-2962

### 사찰 매매

- 경남 고성 대가면 황토방 2칸 분양 1칸 2000만원
- 자연 경관 환경 좋음
- 미산 무학산 완동동 내 암자 양도 매매

011)839-4862  
055)674-2205

### 사찰 안내

- 위치: 은평구 용원 4동 (대입시장) 2층 35평
- 석가모니불, 지장, 관음(동불조성), 후불, 신중, 칠성탱화, 대목, 법중, (불단조각, 담장)경탁, 경상, 명기단법당 및 내부단청칠음, 대청어른설치
- 법당: 스님방, 상량실, 주방 및 방, 화장실 및 욕실 1위배란다
- 가액: 보증금 2천 월 40만원
- 시설비 별도 협상

011)685-8484

###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시 북구 인덕3동
- 구조: 3층건물38평(옥상사우나) (법당,대방, 중방,조리장, 화장실)
- 시설: 청동석가모니불, 청동 관세음보살, 후불탱화, 신중탱화, 열가단, 영구시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300만원)

051)333-0172

### 사찰 안내

- 위치: 인천 시내
- 대지: 1500평 이상
- 건물: 28평
- 가액: 답사 후 결정

인천 시내가 한 눈에 보이는 위치  
전망 좋은 명당임

011)321-0194

### 좋은터 안내

- 스님: 암자 (토굴)
- 학자: 서재 (연구실)
- 부자: 별장
- 위치: 경남 합천 삼가 부근
- 대지: 287평, 전답 773평
- 전통 고목과 수려한 자연
- 가액: 2억 8천만원

055)573-8972

### 포교당 안내

- 위치: 대방동 신대방3거리
- 전철역 (7호선 5번 출구)면
- 구조: 법당 30평, 요사채, 방 3개, 부엌, 욕실 및 다용도실
- 가액: 보증금 5천만원 (월60만원)
- 전세가능, 시설비 1천만원 또는 보증금 3천만원 (월80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1)741-2087

### 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 태백산 도량
- 평수: 약 830평
- 특징: 법당 20평(목조), 요사채 3동
- 각 30평씩, 방6개, 사선각, 조각, 3층탑, 5층탑, 미륵불, 지장전, 남굴담부사주들 내 수제지 기차역에서 도보로 5분거리
- 스님이 몸이 안좋은신 관계로
- 가액: 답사 후 결정

02)2618-0767/011)753-0768

### 포교당 안내

- 위치: 대구 서구청 4거리 (한빛은행앞은편)
- 평수: 4층 건물 3층, 46평
- 가액: 보증금 1,5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천만원
- 특징: 시설 A급 위치 최고 (법당 시설 일체, 방 3개)

053)565-0430 / 016-875-0934

### 토굴 안내

- 위치: 강원도 원주
- 대지: 田 304평, 국유지 1000여평
- 건물: 요사채 1, 황토집질방1
- 가액: 3000만원
- 특징: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끼고 있음

016)779-9475

### 사찰 안내

- 위치: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 스님산 경계선 관공지 입지다.
- 평수: 62평 도량내 부지 1800평 현재 현담 칠불
-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층 청고 동통
- 특징: 신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 백호가 수려하고 봉황이 앉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할 부지임
- 가액: 2억 5천

018)533-7780

###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 대지: 50평
- 건물: 대웅전,신사지, 요사채 2동
- 위치: 경남 합천 삼가 부근
- 가액: 1억 2천

016)501-3671